

최규하 대통령 연보

1919. 07. 16	강원도 원주 출생
1937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 졸업
1941	도쿄고등사범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43	중국 다통학원 정치행정학과 졸업
1945~194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1946~1948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
1951~1967	외무부 통상국장, 주일본대표부 총영사, 주말레이시아 대사
1967. 06~1971. 06	제14대 외무부 장관
1971~1975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
1975.12~1979.12	제12대 국무총리
1979.12.21~1980.08.16	제10대 대통령
1981.04~1988.02	국정자문회의 의장
1991.02~1993	민족사바로찾가국민회의 의장
2006. 10.22	서거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보여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1950~60년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기반을 마련하고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가 힘들 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설득하여 위기를 타개한 유능한 외교관이었다. 국무총리시절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술선 수범하였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1979년 12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조용히 서교동 사저에서 말년을 보냈다.

관람안내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관람료	무료
관람예약	일 3회, 1회 15명 이내
사전예약방법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
문의전화번호	02) 2133-2640(서울시 역사문화재과) 02) 3144-2038(최규하대통령가옥 관리실)

교통안내

버스	271, 7013 기업은행 서교동지점(최규하대통령가옥) 602, 603, 604, 760, 5712, 5714, 6712, 6716, 7612 서교동 사거리(최규하대통령가옥) ※버스노선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차	2호선-합정역 2번출구(도보로 15분) 6호선-망원역 1번출구(도보로 10분)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희망서울
문화유산은 세대를 잇는 서울

崔圭夏
최규하

청림, 김소, 절제의 대통령



서교동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다시 만난다

서교동 최규하 대통령 가옥은 최규하 대통령이 1973년부터 1976년 제12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1980년부터 2006년 서거할 때까지 줄곧 거주한 가옥이다. 내부에는 거주 당시의 생활유물들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This house is where former President Choi Kyu-hah (1919. 7. 16~2006. 10. 22) lived for about 30 years, from 1973 to 1976 when he was appointed prime minister and moved to the official residence of prime minister and from 1980 when he resided from the presidency to 2006, the year he died. It is a structure of one basement and two over ground floors built with reinforced concrete and bricks and covered with cement roof tiles, exhibit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urban house very popular in the 1970's. The house is regarded as a valuable historical asset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Korea's political turbulence in the 1970s and 1980s, and contains a fine collection of the president's personal belongings reflecting his simple, frugal life.

韩国前任总统崔圭夏(1919. 7. 16~2006. 10. 22)从1973年到1976年任命为韩国第12任国务总理迁至三清洞公馆前, 从1980年卸任总统后到2006年逝世前, 大约30年居住此处. 此建筑为地下1层, 地上2层, 钢筋混凝土及砌砖结构, 顶部用水泥瓦. 是上世纪70年代城市里常见的复式双列型建筑. 此建筑是上世纪7, 80年代韩国发生政治, 社会急变时的遗址, 内部展示的遗物反映出崔圭夏生前清廉简朴的生活方式, 具有历史, 资料价值.

崔圭夏(チェ・ギョハ) 元大統領(1919. 7. 16~2006. 10. 22)が1973年から1976まで, 第12代国務総理に任命されて三清洞公館へと移住するまで, そして1980年に大統領職を辞任してから2006年に死去するまでの, 約30年間を過ごした場所である. 地下1階, 地上2階の鉄筋コンクリートと組積レンガと複合構造となっており, セメントの瓦屋根葺の, 1970年代に流行した複層複列式の都市住宅である. 政治的, 社会的変革の時代である1970~1980年代の遺産であり, 崔元大統領の生前の清廉で素朴な暮らしぶりを知ることの出来る遺品が保存されているため, その歴史的価値は高い.



대통령이 살던 가옥은 1970년대 유행한 미니 3층 주택

서교동 가옥은 1970년대에 주택개량사업으로 양산되던 미니 3층 주택이다. 지하층은 방과 주방 및 차고로 구성되었고, 1·2층은 가운데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응접실, 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 내부에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다양한 생활유물들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어 마치 현대 생활사 박물관에 온 듯하다. 평생 검소함과 절약하는 생활태도로, 청렴하고 조용하게 살다간 대통령의 지나온 삶을 되새겨볼 수 있다.



1층 응접실



1층 영부인 홍기 여사방



2층 서재



2층 전시실(옛 자녀방)



지하 부엌



지하 전시실

The house was one of the houses supplied in large quantities in the 1970s in an effort to improve the existing houses. Visitors can see how the master bedroom, the study, and the basement were used during his lifetime. The objects that he used as public official, such as appointment certificate as prime minister, and old objects including a 50-year-old electric fan can be seen here and there.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국제사회 외교기반 마련



외무부 차관 시절 1959.11.25

최규하 대통령은 공직을 농업관리로 출발 하였으나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으로 발탁 되면서 외교관이 되었다. 1959년에는 주 일본 대표부 공사로서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ECAFE) 제11, 12, 13차 총회와 제4차 한일회담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기반을 마련 하였다.

1960년대 ASPAC 구상과 1970년대 석유파동 대처

외무부 장관시절(1967~1971)에는 주 말레이시아 대사시절부터 준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료회의(ASPAC)를 비롯하여 대한 민국의 위상을 높인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 외교특별 보좌관 시절에는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가 힘들 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직접 설득하여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였다.



외무부장관으로 유엔회의 참석 1967.11.6



ASPAC 본회의 참석 1966.6.14

Choi Kyu-hah carried out fruitful activities as a career diplomat, playing a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Pacific Council (ASPAC) in the 1960s. During the first oil shock in 1973, he helped the country secure oil supply through a meeting with the king of Saudi Arabia.

현장 행정의 모범을 보인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다

1975년 12월 총리 취임 이후 주말 에도 현장을 시찰하며 행동하는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였다. 또한 항상 “부인 조심, 비서 조심, 자녀 조심” 이라는 말로 공직자의 부패를 경계하였다.



장성탄광 현장시찰 1978.1.9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면담 1980.5.14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12월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던 중동지역 국가들과 우호를 증진하고자 순방에 나섰다.

흥기 여사, 공직자 부인의 모범을 보여주다

“여성의 큰 소임은 살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각하를 돕겠어요.”

1979.12.7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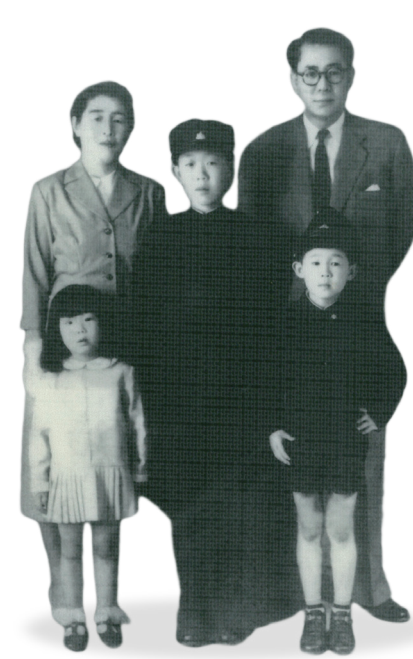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여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흥기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밝혔다.



흥기 여사

As Prime Minister, he spent weekends visiting onsite and set an example, striving to get rid of public officials' corrupt practices. He was elected President in 1979. Eight months later, he resigned as President with the emergence of the neo-military coup group (Singunbu) and people's fierc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He spent the rest of his life quietly at his house in Seogyo-dong

가족이 기억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최규하



1957년 주 일본대표부 총영사 시절 가족사진

최규하 대통령은 평소 “부지런한 노력만이 그 공을 인정받는다” 는 「유근유공(惟謹有功)」을 좌우명으로 삼아 자신의 공직생활은 물론, 자녀 교육에서도 늘 성실함을 강조하였다. 자녀들은 “아버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형제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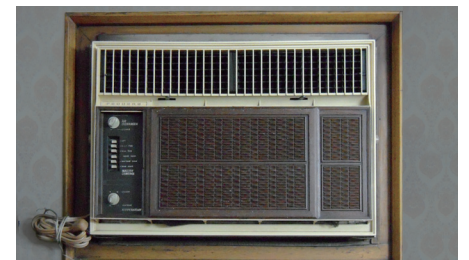
외손자 동희의 카드 1985

쓸 만한 것이 집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다

최규하 대통령 부부는 항상 허례허식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을 했다. 1층 응접실에는 생산된 지 50년 넘는 선풍기, 사용한 지 30년 된 소파와 탁자 등 오랜 세월을 담은 살림살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주 일본대표부 총영사시절 딸 중혜씨가 땀띠로 고생할 때 구입한 선풍기



장남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창문형 구식 에어컨

His motto was “Diligent efforts get rewarded.” He not only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grity among his children, he also practiced it as a public official. The former first couple lived frugally, avoiding extravagance.